



“초상권 동의 범위”와 “후속보도의 조정성립”에 관한 법적 쟁점

위원회는 올해 5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갈등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사건의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룬 이번 토론회는 양 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초상권 동의의 범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과거에 동의를 받은 초상을 새로운 보도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단체 행사 사진보도에서 해당 단체의 동의 외에 개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청인측 토론자들은 과거 이뤄진 동의가 추후 새로운 보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므로 단체 사진보도에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측 토론자들은 신청인이 과거 동의한 초상을 언론사가 유사한 기사에 재사용한 것으로 신청인의 추가적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모든 보도현장에서 초상 사용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평을 하고 있는 권요승 중재위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아닌 후속보도 형태로 합의를 할 경우 이를 법적 효력을 가진 조정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 하는 조정제도의 입법취지를 볼 때, 당사자간 후속보도 형태로 합의를 한 것은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후속보도로 합의를 할 경우, 조정조서에 구체적인 합의문항을 명시하고 이행담보 조항과 부제소 합의조항을 포함시킨다면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평을 하고 있는 성기용 이대 로스쿨 교수

권성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언론보도에서 사진과 영상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초상권 관련 언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토론회가 초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고 평가했다. 또한 “이화여대 로스쿨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를 보며, 향후 법조계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재위원, 이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생, 일반인 등 9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플로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장진훈 중재부장

(토론회 영상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